

비즈 프리즘 | 유례없는 폭염에 달라진 일상

반바지 출근·쇼핑몰 피서...폭염 뉴트렌드

통 넓은 오피스룩 반바지 각광
복합쇼핑몰 휴양지 분위기 강조
은행은 쉼터 운영...지역민 밀착



NH농협은행의 무더위 쉼터 운영 모습(왼쪽), 경방 타임스퀘어의 '서머 아일랜드'. 무더위 쉼터, 도심 속 휴양지, 오피스룩 반바지 등 폭염이 낳은 트렌드들이 주목받고 있다.



연일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밖에 잠시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와 함께 급세 땀으로 범벅이 된다. 예년에 접하지 못했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에 볼 수 없던 색다른 트렌드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은행 무더위 쉼터 “눈치보지 말고 오세요”

요즘 전국의 은행 점포들은 무더위를 피하는 소중한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30일까지 전국 은행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이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와 지역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잠시 더위를 피하려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마다 점포 앞에 무더위 쉼터 알림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은행 업무 여부와 상관없이 전 방문객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정부가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며 은행 점포의 냉방을 제

한했으나, 폭염 때문에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다”며 “오프라인 고객이 줄어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시중은행에게 호재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심 피서지로 변신한 복합쇼핑몰

도심 복합쇼핑몰은 피서형 몰링(mall)ing, 복합쇼핑몰서 쇼핑 뿐 아니라 여가도 즐기는 것)쪽으로 연일 밤낮으로 북적인다. 이런 추세에 맞춰 쇼핑몰마다 여름 휴양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경방 타임스퀘어가 5일까지 1층 아트리움에서 운영하는 ‘서머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해변, 섬, 리조트

풍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열대 식물과 보트, 서핑 보드 등의 소품을 배치해 바캉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AK플라자 분당점은 15일까지 1층 피아짜360광장에 대형 스파클링 조형물을 선보인다. 특수기법 인공기포와 LED 조명을 활용해 시원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한다. IFCC몰은 12일까지 L3층 사우스아트리움에서 대형블록으로 도심 속 놀이터 ‘블루 어드벤처’를 운영한다.

●오피스룩 인정받는 반바지

패션 트렌드로는 오피스룩 반바지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 확산 차원에서 반바지 차림을 허



세정 브루노바피의 오피스룩 반바지.

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회사에서 착용하는 만큼 휴양지나 레저용으로 입는 기존 반바지보다는 조금 기장이 길어지고 통이 넓어진 게 특징. 검정, 회색 등 모노톤으로 절제미를 주는 색상과 무릎 선까지 오는 기장이 대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반바지 차림의 출근이 허용된다고 해도 바캉스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패턴과 색상은 금물”이라며 “출근용 오피스룩 반바지라면 길이와 색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열 기자 jiyaj@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1일

코스피지수	2307.07	▲	+11.81
코스닥지수	790.25	▲	+14.73
日 닛케이 지수	2만2746.70	▲	+192.98
中 상하이 종합	2824.53	▼	-51.8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24	▲	+0.001
환율 (원·달러)	1120.6	▲	+1.9
국내금값 (원/그램)	4만4035.45	▲	+139.85

하이트진로, '자두에이슬' 미국 출시



하이트진로가 8월부터 미국 전역에 ‘자두에이슬’(사진)을 출시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청포도에이슬을 비롯해 이슬톡톡, 망고링고 등을 출시해 현지 과일리큐르 시장에서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과일리큐르의 성장에 힘입어 진로아메리카의 실적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전년 대비 10% 늘어난 2306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시장에서 이 같은 성장은 LA를 중심으로 한 교민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참이슬, 하이트 등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7년째 미국 프로야구 구단 LA 다저스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3월에는 다저스비어를 출시했고, 다저스 구장 내 ‘하이트 바’ 시음행사, 소주카테이 판데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를 적극 알렸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자두에이슬 출시로 과일리큐르 제품 공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음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술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약사, 공격적 투자로 미래 먹거리 찾는다

한미약품 신약 R&D 투자 31.8% 늘려
영업이익 감소 GC녹십자도 R&D 확대

제약업체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R&D 투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미약품은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2413억원, 영업이익 199억원, 순이익 144억원을 잠정공시하며 2분기 매출의 20.1%에 해당하는 485억원을 R&D에 투

자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19.0% 늘었다. 자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면서 R&D 투자는 전년 대비 31.8%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매출과 R&D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인 배경에는 주력제품들이 한몫하고 있다. 아모잘란 패밀리(고혈압 3종), 로수젯(고지혈증), 로벨리토(고혈압·고지혈증) 등의 복합제와 구구(발기부전), 팔팔(발기

부전), 한미탐스 0.4mg(전립선비대증) 등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들의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신약 R&D에 투자하는 매출-R&D 선순환 구조가 2분기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미래 비전을 위한 투자와 내실 있는 경영의 조화를 강조했다.

GC녹십자는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30% 높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GC녹십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4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1.5% 줄어든 133억원이다.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하는 동안 수익성 변동 폭이 컸던 이유는 연구개발비용이 전년 보다 18.9%나 증가한 데다 경쟁 심화로 인해 독감백신 남반구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수험생에게 전하는 합격생의 돌직구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풍광교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9급공무원 합격생의 솔직한 속내 공개...“고민할 시간에 도전해라!”

최근 대한민국은 공무원 시험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험생과 더불어 공시생들의 고민 또한 커지고 있는데, 바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도전 여부’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이 ‘지금 시작해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공무원 시험에 지금 도전하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9급공무원 시험을 선뜻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공시생들을 위해 합격생들이 이야기하는 ‘돌직구’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에 올랐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든 시험”이라는 돌직구를 날리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될 수 있는 공평한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해 공무원 시험에 대한 합격생들의 솔직한 속내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도전을 시작해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당장 시작하시길” 등 9급공



무원 시험을 망설이는 수험생을 위한 솔직한 한마디를 전하며 ‘팩트 폭행’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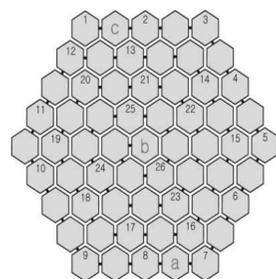
이들은 모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9급공무원 시험 합격생들이다. 에듀윌의 공무원 시험 커리큘럼을 통해 노하우를 얻었고 수험생활 도중 슬럼프를 겪을 때에도 에듀윌과 함께여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에듀윌은 9급공무원 온라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역학원도 보유하고 있다. 학원은 서울 대량, 서울 노원, 부산 서면, 인천 부평에 위치하며, 전문 학습 매니저의 밀착관리로 수험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01.항공력으로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 02.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권태를 느끼는 시기. 03.피곤을 떨기 위해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04.승리를 축하하는 노래. 05.바지나 고의의 다리가 들어가게 된 곳. 06.아주 가늘게 오는 비. 07.세금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둔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08.사냥을 못하게 하는 구역. 09.아홉 자나 되는 아주 큰 키. 또 그런 사람. 10.햇곡식으로 새로 빚은 맑은 술. 11.얼굴 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 줄. 12.매우 보드랍고 가볍게. 13.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아직 이렇. 14.아침밥을 차린 상. 15.서로 서로 도움. 16.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또 그런 마음. 17.아름다움과 추함을 식별하는 인목. 18.협한 벼랑길에 바위 같은 것을 안고 겨우 돌아가게 된 곳.

19.재해(災害)를 입은 사람. 20.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21.사람다운 정겨운 맛. 22.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 23.많은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의 비유. “오우오” 24.해질녘의 풍경이 어스레함. “오색오연” 25.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함. 26.쌍방이 다투는 틈을 타서 제삼자가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득.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b,c 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물 이름이 됩니다.

